

미분양 쌓이는데...공급 물량 더 쏟아진다

부동산·가계부채 대책에 소비 위축...전국 미분양 한달새 2.4%↑

광주 0.4%·전남 13%...하반기 전국 23만·내년 43만가구 입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 지역 주택 경기가 점차 식어가고 미분양 아파트도 동반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9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4420가구로 전월 대비 2.4%(1290가구)가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3111가구로 전월 대비 6.1% 증가했고, 광주·전남을 포함한 지방도 4만4109가구로 전월에 비해 1.6% 늘었다.

지난 9월 말 현재 광주 미분양 주택은 769채로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전남 지역 미분양 주택도 780채로 13% 늘어

났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이후 8월까지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8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6·19부동산 대책에 이어 8·2부동산 대책,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줄었다는 의미다.

문제는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경기가 식어가고 앞으로도 한기가 가득하다는 점이다.

금융결제원 집계를 보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분양된 아파트 98개 단지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3만7751

가구 모집에 54만4974명이 몰려 평균 14.4대 1을 기록했다.

서울 17.8대 1, 대구 198대 1, 부산 65.1대 1로 8·2 대책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경쟁률보다 높았지만 최근 하락세가 감지된다. 반면 경기 2.9대 1, 광주 9.4대 1, 제주 0.02대 1, 경남 3.3대 1 등으로 다른 모든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8·2 대책 이전 3개월 평균보다 낮았다.

실제로 지난 9월 분양을 시작한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미림'은 1순위 청약에서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부동산 경기 한파가 예견되고 있는데도 대규모 입주물량이 대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입주 물량은 전국 22만9708가구로 내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43만4399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올해보다 14.7% 증가한 수치다. 이는 최근 5년(2012~2016년) 연평균 입주 물량이 24만가구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20만가구가 많은 셈이다. 입주 물량이 일시에 몰리면 집값 하락이나 역전세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과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택 수요자의 소비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박상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최근 2~3년간 주택경기 호황으로 주택이 공급과잉 수준이고 여기에 규제가 맞물리면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날 조건이 갖춰진 상태"라며 "금리인상, 신DTI 시행, 주택 분양보증 축소 등으로 내년 주택 미분양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45.44 (-3.97)	↓ 금리 (국고채 3년) 2.13% (-0.02)
↓ 코스닥 701.14 (-2.65)	↓ 환율 (USD) 1111.90원 (-3.10)



광주국세청-여성벤처인 '소통의 시간'

이은향청장 현장 의견 경청

이은향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 6일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회장 임민자) 월례포럼에 참석하여 지역 여성벤처경제인 50여명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은향 청장은 "역사로 알아보는 세금 이야기"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우리나라 주요 역사적 사건 속의 조세제도 변천사를 통해 앞으로 국제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사회적 편견과 유리천장의 벽에 막혀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여성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경청했다. 특히 이은향 청장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성실납세지원기관으로서 지역 상공인에게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3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은향 청장은 "현장에 현명한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경영애로 기업과 전통·향토 업소, 영세 상공인 등과의 실질적인 현장 소통 강화 및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호타이어 1150억원 유동성 확보

대우건설 보유 주식 매각...채권단 내달초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금호타이어가 대우건설 보유 주식을 팔아 115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마련했다. 채권단과 맺은 자율협약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이다. 채권단(채권금융기관협의회)은 빠르게 이달 말 실사를 끝내고 내달 초쯤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7일 금융·산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전날 장 종료 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대우건설 주식 1827만주(약 4.4%)를 약 1150억원에 매각했다. 매각 당일 종가(6810원)에 7%대의 할인율을 적용해 기관투자자 등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의 대우건설 보유 주식 매각은 현재 채권단과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른 유동성 확보의 일환이다. 금호타이어는 자율협약 체결 전 자구안을 내면서 채권단이 담보로 잡고 있는 대우건설 보유 지분을 매각해 유동성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었다.

채권단 관계자는 "당장 유동성 문제 가 없지만 혹시 모를 수요에 대비해 유동성을 미리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주식 매각 대금은 에스프로 계좌(구매 안전서비스)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채권단은 현재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호타이어 정밀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초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 부부장(부행장)과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중국 공장을 찾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돌아왔다. 금호타이어 부실을 일으킨 중국 공장 정상화 방안을 찾고 재무·영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채권단은 중국 공장이나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는 중국 내 잠재 투자자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 결과를 토대로 채권단의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지원 규모, 중국 사업 정리 방안 등을 담은 경영 정상화 방안은 다음 달 초쯤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실사를 마무리하면 곧바로 경영 정상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다음 달 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협의회가 추천한 김종호 전 금호타이어 사장과 한용성 전 코리아세셋투자증권 부회장을 새 사내이사로 선임한다. 김 전 사장과 한 전 부회장은 각각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회장과 관리총괄 사장을 맡아 경영 정상화를 진두지휘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 적십자사 유공자 최고명예대장상

사회 공헌...광주·전남 첫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7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12주년 기념 광주전남지사 연차대회에서 적십자사회원 유공자 최고명예대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이날 최상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으로부터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최고명예대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고명예대장은 적십자 활동과 적십자회비 납부 등의 적십자 사업지원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각종 사회공헌활동 및 기부문화에 앞장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나 기관에 수여하는 포장으로 5억

원 이상의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다.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지역 사랑봉사단으로 활동하며 연 4회 이상 지역 내 복지시설 및 결손가정, 독거노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 소외된 이웃과 인연을 맺고 김장나눔, 무료배식, 연탄배달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매년 당기순이익 대비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광주·전남 사회공헌활동에 공헌하고 있다.

송종욱 은행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회공헌사업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지역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 中企 중국서 120억 수출 상담

10개社 종합소비재 박람회 '광저우 캔톤페어' 참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주동필)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122회 광저우 캔톤페어'에 광주시 우수 중소기업 10개사가 참가, 총 1076만 달러(120억여 원)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7일 밝혔다.

광저우 캔톤페어는 매년 봄과 가을에 개최되는 세계 최대 종합소비재 박람회다. 총 118만㎡ 규모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 6만여개 부스에 2만5000여개 기업, 20여 만명의 바이어가 참가했다.

이번 식품박람회에 광주에서는 유아용품, 화장품, LED, 디자인제품, 식품업체 등이 유망제품을 출품했고 총 290건 1076만 달러(0)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

특히 올해 장엄한 (주)메종은 중국 바이어와 초도물량 1000개의 마스크팩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오트세이글로브는 LED 작품제배 시스템 수출을 위한 60만 달러(7억여원) 규모의 현장 MOU를 체결했다. 주동필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사드배치 이후 경색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전시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과 대중 수출을 위한 맞춤형 수출 지원을 통해 광주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062) 433-9191